

2025. 6. 9

해외동향부 (제 7166)

- 주요 뉴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관세 영향에 소폭 상승 예상 美中 무역협약 등도 관심
 - 미국 트럼프, 연준 의장에 금리인하 요구. 對中 원전설비 수출 허가 임시 중단
 - 중국 상무부, 자동차 등 민간산업 중심으로 희토류 수출을 일부 승인
 - 일본,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견 지속. 일본은행 국채매입 감축은 연장될 전망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중국과의 무역협상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1.5%],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1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5월 고용보고서,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금리인하 등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저조한 5월 ISM 서비스 PMI 등 일부 경기둔화 신호가 반영
유로화 가치는 0.4% 상승, 엔화 가치는 0.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큰 폭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8bp 상승

※ 외환시장 휴장,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6/6일	5/30일	전주말대비			6/6일	5/30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000.4	5,911.7	+1.50%	국채금리 10y	미국	4.51%	4.40%	+11bp
	유럽	553.64	548.67	+0.91%		독일	2.58%	2.50%	+8bp
	중국	3,385.4	3,347.5	+1.13%		영국	4.64%	4.65%	-0bp
	일본	37,742	37,965	-0.59%	CDS 5y	한국	28bp	29bp	-1bp
	한국	휴장	2,697.7	-		중국	48bp	51bp	-3bp
환율	달러지수	99.19	99.33	-0.14%	위험지표	EMBI+	371bp	385bp	-14bp
	유로화	1.1397	1.1347	+0.44%		VIX	16.77	18.57	-9.69%
	엔화	144.85	144.02	-0.57%		WTI유	64.58	60.79	+6.23%
	위안화	7.1926	7.1989	+0.09%	원자재	구리	484.8	467.8	+3.65%
	원화	휴장	1,380.1	-		금	3,310.4	3,289.3	+0.6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관세 영향에 소폭 상승 예상. 美中 무역협약의 등도 관심

- 6/11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될 예정. 시장에서는 5월 헤드라인 CPI의 연간 상승률이 전월비 높은 수준(2.3%→2.5%)을 나타내고, 월간 상승률은 보합(0.2%→0.2%)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근원 CPI 상승률의 경우 모두 전월 대비 높은 수준(각각 2.8%→2.9%, 0.2%→0.3%)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
- 구체적으로 서비스 부문 임의소비재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반면 재화 부문에서 상승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최근 베이징북에서도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
- 이러한 전망이 정확하다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6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전망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 CME의 FedWatch도 금년 2회(9월과 12월, 각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 한편 이 외에 5월 생산자물가지수(12일), 6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13일) 등에도 관심
- 한편 9일 영국에서 美中 무역협약이 열릴 계획. 최근 양국 간 희토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협회에서 관세 뿐 아니라 희토류 및 기술 수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특히 중국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對中 수출 통제의 해제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연준 의장에 금리인하 요구. 對中 원전설비 수출 허가 임시 중단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에게 다시 한 번 금리인하를 요구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가 재앙이 되고 있다고 지적. 특히 1%p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금리인하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
- 한편, 일부 언론들은 상무부가 對中 원전설비 수출 허가를 임시 중단했다고 보도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무역부문을 넘어 공급망 제재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 얼마 전 상무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의 대중 수출을 재검토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기존 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허가 조건을 강화했다고 발표

■ JPMorgan, S&P500지수 목표 상향. BofA는 증시 매수 여력 약화 신호를 경계

- JPMorgan의 라코스-부야스 스트래티지스트는 저가매수 유입, AI 사용의 확산을 고려하여 S&P500지수의 금년 목표치를 상향(5200→6000). 반면, BofA의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4주 동안 증시 및 고수익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증했는데, 이는 매수 여력이 점차 약화된다는 신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

■ ECB 라가르드 총재, 경제 여건 고려 시 현재의 금리 수준은 적절

-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금리 수준은 적절하다고 평가. 다만 부이치치 위원은 금리인하가 거의 종료되었다고 밝혔고, 슈나벨 이사 또한 연준과의 괴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강조. 이는 ECB의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중국 상무부, 자동차 등 민간산업 중심으로 희토류 수출을 일부 승인

- 상무부는 법에 따라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고 발표. 또한 로봇, 자동차 등 산업 발전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 다만 EU에 대해서는 희토류 수출을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

■ 일본,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견 지속. 일본은행 국채매입 감축은 연장될 전망

- 미국과의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5차 협상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아직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 특히 양국이 자동차 관세 등 민감한 사안에서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15~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전 합의 타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한편 닛케이 등은 16~17일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6년 3월 종료 예정인 국채매입 감축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 다만 최근의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감축 규모는 현재 수준보다 낮출 가능성이 제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도매재고, 유로존 6월 Sentix 투자자신뢰
- 중국 5월 소비자물가 및 수출입, 일본 1/4분기 GDP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실업률 상승·소비지출 감소·금융시장 충격 등 3가지 위험 직면할 가능성 - WSJ

(The U.S. Economy Is Headed Toward an Uncomfortable Summer)

- 비교적 양호한 일자리 데이터와 실업률에도 기업은 트럼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와 고용 등에 미온적.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하 기대도 저하. 이에 경제는 다음의 3가지 이유로 불편한 여름 초입에 직면
- 첫째,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 특히 기업이 수요가 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률 급등 위험이 존재. 둘째, 소비자의 연체율 상승, 저소득층의 가계재정 악화, 주택 매매 수급 불균형 심화 등으로 소비지출 둔화될 우려. 셋째, 관세의 물가 영향, 대규모 재정적자,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

■ 미국 정부의 재정 억압을 통한 저금리 유도, 성공 가능성은 낮은 편 - 블룸버그

(Government can't force interest rate lower)

- 정부 및 시장에서는 금리가 '10년대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부채, 글로벌 탈동조화,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 등으로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이는 정부와 민간의 차입비용을 높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소지. 한편 연준은 자연 금리 수준에 대해 통제력이 제한적
- 이에 정부는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 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한 국채 수요 유도 등의 금융억압 수단을 모색. 그러나 과도한 억압은 달러화 약세, 인플레이션 가속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이에 유일한 해법은 연금 개혁 등 장기재정 건전화에 필수이나 정치적 제약으로 실행 가능성은 제한적

■ 미국 트럼프의 투자 유치 성과, 실현 가능성 낮은 과장된 수치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s investment deals are a mi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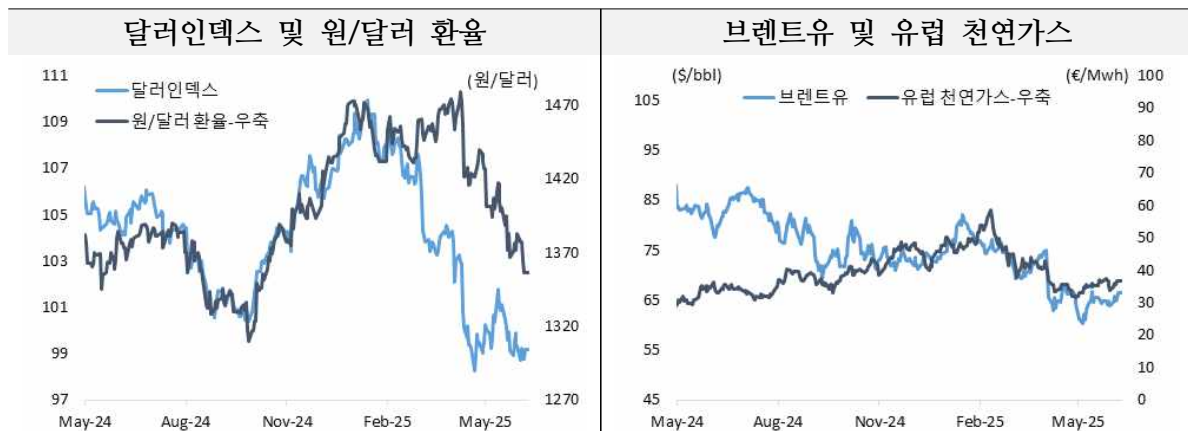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유치한 투자가 이미 10조 달러 가치를 초과했다고 주장. 다만 실제로는 6조 달러 수준이며(Goldman Sachs), 이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 트럼프 1기 당시에도 투자 약속 중 80%만 이행되었으며, 최근 발표된 투자의 대부분은 기존 계획과 중복
- 실제로 기업의 자본 지출 전망은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았으며,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이 제약 요인. 현재 국내 자본지출 프로젝트들은 상당 부분 보류되거나 취소되어 트럼프 2기 말까지 순총투자는 악화될 소지

-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격차, 트럼프 무역 및 통화정책 차이 등으로 확대 - Financial Times**
(Transatlantic interest rate rift widens as Trump piles pressure on Powell)
 - 최근 1년 연준과 ECB는 각각 3차례,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이에 양측의 금리 격차는 225bp 이상 벌어지며 팬데믹 이래 최대 수준. 이는 트럼프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 유럽의 경우 물가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Evercore ISI)
 - 이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유로존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결정. 아울러 양 지역 간 인플레이션 예상 경로(미국 상승, 유로존 하락) 차이로 유로존은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 일부에서는 무역전쟁 악화 및 연준 금리 동결 시 양 지역 금리 격차는 325bp 이상 벌어지며 '06년 이후 최대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
- **주요국 국채시장, 재정 악화에 투자자 저항 본격화 - Financial Times**
(The mounting pressure on bond markets)
- **미국 가계의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및 부채 급증, 경제 악화 시 위험 증폭될 우려 - 블룸버그**
(US Household Debt Has Climbed to a Record — Are You Feeling the Pinch?)
- **미국 기업의 정크본드 발행, 7월 무역갈등 재고조 가능성에 큰 폭 증가 - Financial Times**
(Junk bond sales surge as companies try to beat fresh tariff uncertainty)
- **미국 재정, 정치적 개선 노력 부재로 위기에 봉착할 소지 - Financial Times**
(US fiscal policy is going off the rails — and nobody seems to want to fix it)
- **미국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 성장 효과에 대한 공화당과 학계의 견해 대립 - WSJ**
(Republicans and Economists at Odds Over Whether Megabill Will Spur Growth B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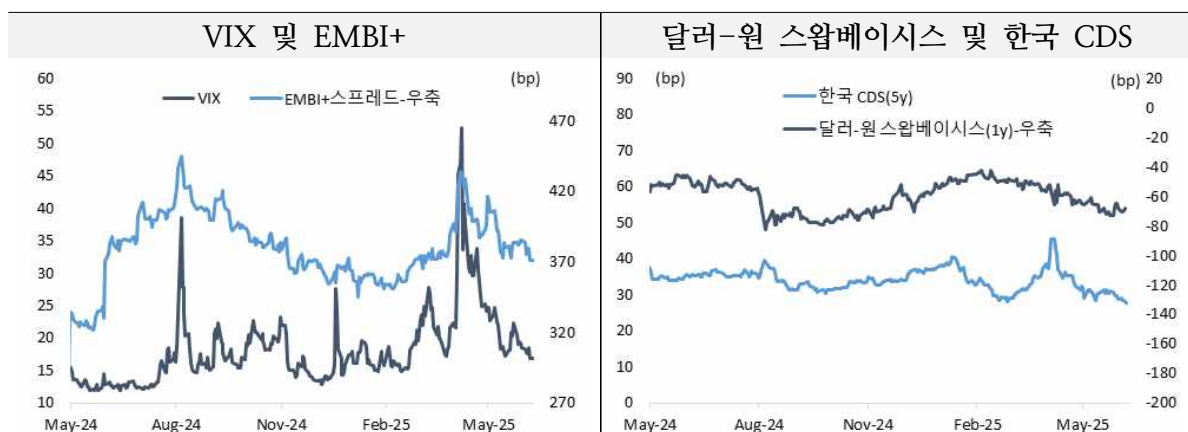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